

1. 教會에 革新을
2. 社會에 變革을
3. 世界에 所望을

시 취 와 교 회

4월 20일 시 취를 앞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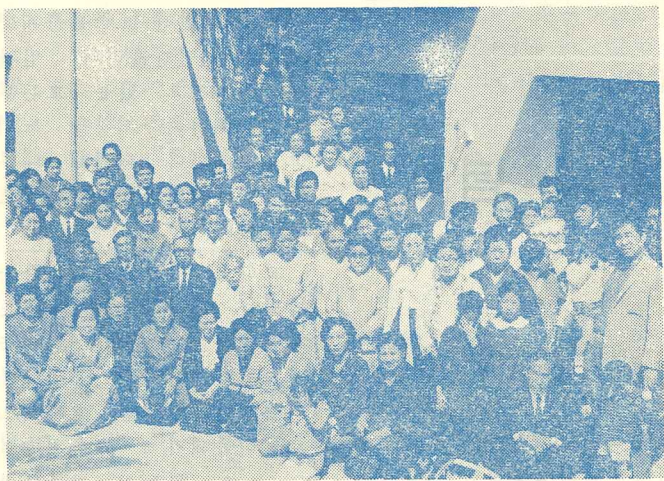
오는 4월 20일에 총회시 취국에서 금년도 목사 강도사 장로 시취를 시행하게 된다. 총회시취는 목사와 장로의 장립안수를 배풀어 자격을 부여하는 교회권위의 행사다. 목사의 자격은 한 교파의 자가당착으로 그 교파 안에서 목사로 인증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교회가 세계의 모든 교파가 인정할만한 자격을 주는 것이다. 재일 대한기독교 총회에서 시취를 하고 안수를 배풀 목사의 자격은 본국의 모든 교파가 인정하는 동시에 세계교회가 인정하는 목사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재일 대한기독교 총회의 조직은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지상권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동시에 세계교회가 같은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권을 갖고 있는 교회적본질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장로교회의 선교지의 교회라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일 대한기독교교회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60년 역사 가운데 해방후 처음으로 갖춰진 권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2차대전 전에는 본국교회의 어느교파의 노회나 대회에서 안수를 받거나 일본교회 어떤 교파의 권위로써 안수 받는 것이 재일 한인 교회의 목사들이었다. 1947년 제3회 총회에서 재일본 조선기독교연합회가 재일본 조선기독교 총회로 되어 연합회가 가지지 못한 권위와 연합회가 갖추지 못한 헌법과 모든 제도를 가지게 된 것이다. 연합회가 총회의 형성을 이루게 되어 연합회의 성격에서 교회성격으로 바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배푸는 성예전과 안수 예전을 총회가 배풀게 된 것이다. 근일에 있어

서 시취에 대한 논의가 많은것 같은데 시취를 더 엄하게 하자니 또 한편에는 너무 엄하게 할것 없고 그 인물과 신앙경력의 여부를 보아 시취는 자격을 주는 한 단계의 형식으로 시행해도 무방하다. 오히려 그 편이 시대적이요 실존적이지 아니나 등의 양론을 들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것 같다. 그러나 원래 총회가 시취를 시행하는 것은 시취국을 설치하여 시취국원들에게 총회권위와 총회의 교회적인 신앙의 부요함을 의탁 시행케 한것이며 세계교회가 인정할 교회권위를 가지고 시취를 시행해 온 것이니 구구한 의견에 좌우 될것은 아니다. 만약 재일 대한기독교 총회가 단지 자기 교파적인 소소한 의견에 좌우되어 이 일을 시행한다면 세계

교회로서 용인할수 없는 권위를 잃은 시취가 되고 말것이다. 시취로서 결과되는 목사 장로 강도사의 자격은 교회형성의 극히 중요한 요소가 될것이며 재일 대한기독교교회의 세계 교회적인 권위에 질적인 영향을 주는 교회문제의 가장 중점적인 과제로서 피차가 심중히 생각하여야 함것이다. 재일 대한기독교 교회가 근본적으로 요청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 총회를 지고 나가는 상당한 일꾼을 세우는것과 세계교회가 함께 선교책임을 공동책임으로 질만한 인재를 배출하는데 손색없을 만한 시취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현시취원 오운태 이인하 전영복 김원치 김덕성 여러 목사님들에게 기대되어 있다는 것을 제기하기 싶다.

(전영복 목사)

大阪教会 入堂式 举行



3월21일 오전 11시 새로 맞이한 김덕성목사의 목회자적인 대환등으로 총회 KCC회관 건설과 공동작업으로 건설된 KCC 예배당에서 재일 대한기독교 대관교회의 입당예배를 엄숙히 올렸다. 김덕성목사는 재일대한기독교총회총회장으로서 재일 61만동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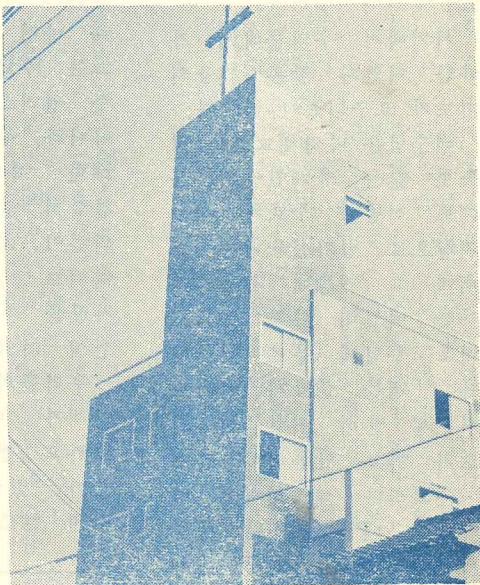
입당식 예배를마치고 구명에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목사로서 과거 50년의 역사의 전통 깊은 대관교회를 이끌어 나가는게 가장 유력하고 적절한 인물이라고 내외에서 기대하고 있는바 대관교회가 구 예배당을 이양하여 KCC

회관옆에 대관교회로서 136평의 대지를 대관 시내 가장 중심지인 자리에 마련하고 모범적인 예배당을 건설하는 계획으로서 금번 4,200만의 거액을 책임액으로 지불완료하여 입당예배를 보게 된것이다. 총회 선교10개년계획 총간사 전영복목사가 설교를 하고 150명 교인이 빛나고 밝고 장엄한 예배당에서 입당식을 거행한 모습은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신령한 분위기 속에서 평안함과 즐거움과 희망 의욕에 차고 넘치는 듯한 예배였다. 이어서 대관교회로서 KCC 건설을 위해 특별헌금을 작성하여 예배당 건설과 아울러 KCC회관 건설에 대한 책임까지 지려는 성스러운 뜻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대관교회가 다시

없는 기쁨에 넘치었다. 지역사회에 봉사화해의 사명을 구체적 활동으로 몸소 담당하겠다는 자세로서 그 지역사회중심에 교회를 세운 것은 그 교회체질에 있어서 세계에 본을 보일만한 극히 시대적인 새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 된다. 대관교회는 이제 오래동안의 어두운 굴 속에서 밝고밝은 햇빛 쏘이는 땅에 나온것 같은 회열에 넘치고 새로운 희망에 충추는 듯한 교회가 되었다.

새목사 김덕성목사와 200명 신도가 완전히 하나로 뭉쳐서 아주 새로운 체질로 혁신된 대관교회로서 나날이 발전 도상에 오르는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여 말지 않는다

西成教会 入堂式 盛大히举行



大阪市西成区에 뚜렷이 서 있는 고층건물 자판에서 은색찬란한게 보이는 집자가는 금번 새로 9,000만원의 거액으로 지은 우리 대한기독교 서성교회의 새 예배당이다. 3층까지는 지역봉사의 기관으로 만손방으로 설계되어 있고 4층부터 5층까지 교회의 시설로서 예배당 목사관 교육실 회의실 청년실 여전도회실 숙소 등 교회활동에 충분한 시설을 갖춘 건물이다. 담임목사로 김원치목사가 백여명 교인을 거느리고 일치 단결 힘을 합하여 세워진 교회다. 수개월의 공사과정을 마치고 3월21일 드디어 입당예배를 보게되었다. 총회 시취국장 오운태목사를 강사로 모시어 내외 명사를 초대하고 성대히 거행

하였다. 오전11시 부터 입당기념예배를 보았는데 본 교회 교인을 비롯하여 대관 시내 각 교회 교인중 대표들과 각계명사 임석하 무려 250명 회집 엄숙하고도 역사에 대서할 예배를 경건이 하나님 앞에드러었다. 예배를 이어 오후 3시부터 5층 회의실을 축하 파티 연회장으로 차려놓고 한국식 양식 각색 음식을 장만하여 오늘의 즐거움을 나누자는 분위기속에서 축하연을 벌리었다. 대관 시내 각 교회가 각기 자기교회에서 예배를 지키고 나서 교회단위로 교우 대다수가 서성교회 입당을 축하하기 위해 모이었다. 일본교회대표적 명사들도 대를 이어 축하하려고 초대에 응하여 모여들었다.

— 5월 여전도회 월례회를 위하여 —

영혼의 양식

(마태 15 : 21~28)

가나안 여인의 믿음

5월은 어린이주일 어머니주일등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가정의 달입니다. 내집의 자녀들을 어떻게 즐겁게 해줄까 온 식구들이 어떻게 같이 좋은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 생각이 따스한 햇빛아래 더욱 무르익어 갑니다. 주를 믿는 여러 어머니 아내들이여 이 시기에 영의 눈을 밝히며 더 깊고 넓게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내 가족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지 않은가 내가 속한 교회와 이웃의 여러 가족들 우리의 동포들과 온 세계의 형제들이 수없이 믿음없는 세계에서 병들고 방황하는 모습에 마음 무거워 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의 기도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교인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의 반대로 이방땅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인이 나와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귀신들려 괴로와 하고 있습니다」라고……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자기아들에게 버림받아 길가에 헤매는 늙은 아버지가 타인의 아들이 모시려 할때 반가운 심정도 끝없이 섭섭한 심정을 감할 수 없음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로부터 구원이 전 세계에 미치게 하려 했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 함으로 쓸쓸히 이방길로 가시는데 이곳 이방여인의 믿음의 호소는 주님의 심정을 더욱 괴롭혀 주었습니다. 귀찮아 하는 제자들의 청에 따라 대답하시기를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위해서만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 주십시오」하고 여인은 다시 간청 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이 먹을 떡을 집어 강아

지에게 던져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인의 열심은 예수님의 무관심 제자들의 불친절 그위에 이방인으로 받는 천대에도 굴하지 않았읍니다. 여인은 또다시 간청하기를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어 먹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여인의 소원은 이루어지고야 말았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 순간에 딸의 병은 나았읍니다. 병마에 시달리는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이 가나안 여인의 겸손과 신앙은 더욱 강하게 단련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를 마땅한 권리로써 요구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자신에게 대한 특별하신 은사로써 간절히 갈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계속 거절하시는 듯 하여도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그를 신뢰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기도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이 강하고 겸손하며 더욱 더 근기 있어 지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재 일 대 한 기 독 교 회 의

교 육 이 념

배 기 환

우리는 조국을 떠나 일본이라는 외국땅에서 한국 민족으로 삶을 개척하고 있는 재일 한국인 기독교자들. 불행한 조국의 분열은 재일 동포속에 38선을 그려내고 민단 조총련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에 무관심한 동포는 민족적주체성도 없고 일본화에 흘러가는 현상이다. 60%는 일본에서 출생하고 일본에 생활화되고 있는 동포의 자녀들이다. 가정에서도 세대의 단

이 화창한 계절에 하나 나라의 주부로써 내 가정은 물론 혈연(血緣)을 넘은 이웃의 못자녀들의 치료와 구원을 위하여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 ×
자비하신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죄와 전쟁에 시달리며 심신이 피로고 용기를 잃은 저희 무리에게 치료의 손길을 나리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저희 위에 허락하소서. 끝까지 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도우소서. 저희의 가족과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 이웃나라의 수많은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온 땅위에 주님의 높으신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아 멘—

알림:

1. 부녀국장 홍영기목사님과 정인수 목사님께서 지난 3월21일 예루살렘 성지를 비롯한 세계일주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4월 10일에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반가이 맞으시기 바랍니다.
2. 지난 3월3일(화)에 船橋교회에서 관동지방여전도회 총회가 아담하게 열렸읍니다.
3. 세계교회부인연합회 (4월 22일부터 25일까지)가 미국 캔자스에서 열리는 데 이곳 N.C.C. 부인위원회에서는 奥田道子氏가 참석하게 됩니다. 이 상

총 무: 이 영 숙

육책임을 감당하려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교육 이념을 인식하여야 한다.

교회의 여러가지 기능(예배 전도 교육 봉사 신학) 전체를 교육적기능으로 살려야 한다. 교회가 주체성을 가지고 모든 기능(FUNCTION)을 재일 동포의 인간상을 목표로 유기적관념에 있어서 충분히 살려서 교육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원래 교육 EDUCATION이라는 말은 나텐어 E=밖으로 DUCO=끄어낸다는 뜻으로 된것인데 인간생김 그대로 (SEIN)의 상태에서 이상(SOLLEN)의 상태로 끄어내는 것이 교육이라할 수 있으니 무엇이 이상인지를 교육의 목표로 하여 교육이념을 세워야 한다. 우리교회는 「가운데 있는 교회 BETWEEN C-HURCH」요 민단과 조총련 한국과 일본 동양과 서양의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화해의 복음을 몸소전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교회다.

기독교연합회의 기독교적 인간상은 1) 기독교적 저항자…… 일본에 있어서 사회적 국가적 인종차별과 기타 모든 기본적인권에 위반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저항을 느끼는 인간. 2) 기독교적혁신자…… 저항을 느낄뿐만 아니라 목표를 향하여 혁신을 이룩해 나가는 인간. 3) 기독교적 연대자…… 그 모든 활동을 자기혼자 또는 남의일로 생각하지않는 연대책임감에서 사는 인간상. 우리는 이상과 같은 사회과학적인 인간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근본문제에 대하여 인간윤리와 인간이 얽여지고 있는 모든문제에 대하여 저항을 느끼고 하나하나 혁신해 나가는 연대책임자를 인간상으로 한다.

교회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모든 사람속에 혁신을 일으키는 전도방법, 인격을 육성해나가는 인간형성을 효과적으로 이룩해가는 교육적방법을 교회 활동의 전분야에서 발휘해야 한다. 방법으로서 교육적기술과 교실교재등의 시설을 보다 완비되도록 하는 동시에 교육적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교육의 대상으로 의무교육의 단계로부터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각하여야 한다. 기독교적 인격형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유년주일학교로부터 장년 노년 전반을 대상으로 교육이념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재일 한국인의 인간상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교회가 신도전체의 사명으로 교직자와 공동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교회가 독단적으로 활동하기보다 가정과 사회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 민족학원 교포기관과 유대를 가지고 재일 61만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의 특수성은 민족교육을 중시하여야 하는 데 있다. 복음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민족의 하나하나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인간은 추상적으로 아무민족에게도 속하지않는 형태로서는 있을수가 없다. 우리는 「소녀」로서 민족성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감사하므로 그 민족의 일원이 되어 생을 생각하고 더구나 교육이라는 민족적이 과제를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교회는 민족교육을 통하여 무관심 무책임하게 사는 동포에게 자기동일(IDENTIFICATION)의 자각을 일키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책임있는 인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서지방 기도수양회

관서지방회최후로 1971년도 아슈람(기도연수회)을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다.

▶시일·1971년5월3일 오전 11시부터 4일오후 1시까지

▶장소·桃山莊(모모야마소) 전화(0742)45-0655~7 奈良市菅原町1124-1 (近鉄奈良線あやめ池駅下車)

▶비용·1人당 2,800円 (숙박비 1박4식 2,500円 등 록비300円)

▶주제·「성령충만」—오순절—에베소5장 행1장,2장

▶장사·관서지방회각교역자도제직회·3일 저녁6~9:30 이번 아슈람은 1970년대의 새시대를 처하여 재일 대한기독교회가 성령의 크신 은사를 받아 충실히 사명을 감당하자는 간절한 의도에서 모이게 되며 특히 大阪市生野区에 건설된 KCC활동을 관서지방교회전체가 감당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관서에 있는 우리 교회의 중책을 맡은 제직전체가 한곳에 모여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교회형성」이라는 주제로써 깊은 은혜를 나누자는 것이다.



聖書

空いていた墓

ヨハネ 20:11~18

1. 復活した主を死んだと思って墓に尋ねていったマリヤやペテロ達はびっくりした（ヨハネ21:1~8）。マリヤは誰かが主の死体を盗んでいったものと思いこんでいた。だからお墓守であると思われる人に向って、主の死体をどこに移したかと聞いた。このあまりにも不信仰の信者達に対して天使はあなた方はどうして生きている人を死人の中でさがしていますか、その方はここにおられない。ガラリヤにおられた時に言われた言葉、即ち「人の子は罪人らの手にわたされて十字架につけられ、そして、三日目によみがえる」と仰せられたではないかといった（ルカ24:6~7）。そして、しかも死んでいるはずのイエスがマリヤのそばに立っていて「マリヤよ」と呼んだのである。

2. 復活ほど多くの人によって、疑われたことはない。今日でも十字架の犠牲は信じて復活は信じられないという人が多い。実際に復活なしに十字架の信仰もありえない。復活ほどはっきりとした証拠をもっているのも世界では少ない。空いている墓がそのよい例である。イエスの復活を否定しようとたくらんだユダヤ教の指導者たちは、兵卒達にたくさんの金を与えて「イエスの弟子たちが夜中に来て、我々の寝ている間にイエスを盗んでいった」というように番人に入れ智恵をした。もしばれたら自分たちが全責任を負うからといった。このことは、イエスの復活を最もよく証明する言葉である。（マタイ28:11~15）。

3. イエスの復活に対する証拠は、漁をしている弟子と復活の主の対面対話（ヨハネ21:1~7）やエマオ途上での会話と食事でもはっきりとイエスの復活を証明する（ルカ24:13~35）。私たちはこのような多くの証拠にもかかわらず、今日は未だにこれを否定しようとしている。このことは信仰によらなければ理論としてわかって、生命としては受けつがれていないからである。私たちにパウロと同じ

ように、今、肉によって生きているのはパウロという人間の生命ではなく、イエス・キリストが私のうちに生きておられるのである（ガラテヤ2:20）というはっきりとした復活の信仰と墓が空いている時に、彼らは主の死を、また生きているとは思わずに死人としてさがした。私たちは、その愚かさをくりかえさずに、空いた墓は主の生きた証拠と信じよう（マルコ16:6）。

斗争の神学 - 5 -

岐阜教会 牧師 金 承 俊

人間とはなにか

人間とは何か？人間を一体どう理解するのか？人間を一体どのように見て行けばいいのか？これ程、分っているようで分らない問題はない。人間の歴史は人間理解に基づく自己展開であったとも言えるのではなからうか。古くから、人間は自己を知ろうと努めて来た。深く知れば知る程、全く分らないと悲鳴をあげざるを得ないのではない。これ程までに科学が、医学が、解剖学が、生物学が、動物学が、物理学が、脳神経学が、心理学が、生態学が、生理学が地質学が発達したのだから、人間について充分理解しえた筈なのであるが、人間とは一体何者なのか？という問いを寄せざるを得ないのが偽らざる気持ではないだろうか。今後も、ずっと継続し

て科学の進展は限りなく進むであろうし、それを止めてもならないし、否、止めることはできないであろう。そして、将来、何万年後、何十万年後であるかは分らないが、今の形とは違った形の人間存在になるかも知れないし、人間は、自由自在に、人口の数も、食物も、人間の頭脳までも、又いろいろな好む人間にまでも変え、定め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かも知れない。これはあくまでも想像ではあるが、現にそのような可能性が実証されつつあるのである。人間とは一体何者か？どういう方向に進もうとしているのか？われわれは分らない中にも、何かを探ろうとしているのである。

古代人の中には、下は動物の形をし、上は人間の形をした像を通して、人間的、あま

りにも人間的なものと同時に、動物的な、魔的な要素とを兼ね備えた存在を示している。完全な人間にもなれず、そうかと言って、完全な動物にもなれず、中間的存在として呻いている存在として実によく表わしたものである。

では、聖書には一体人間をどのような存在として示しているのか。

創世記1章.6~8, 2章7~9の所を見ると、1.人間は創造された存在である、".神の形に似せて造られている、.他の一切の被造物の中で、神の最高の関心と思いやりを受け、特別な使命を帯びているという事等である。

言いかえるなら、人間には、人間としての限界というものがある。次に、生命の息を吹き入れられた所、生きた者と（ネフェシュ）になったとあるように、二元論や三元論の人間ではなくて、霊肉が全く分離しては意味のない完全な一なる存在とな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それ故に、肉は悪で、霊が善だという考えは、もともと基督教的ではない。霊肉が分離すれば、人ではなくなることになるからである。人間は人格者として創られ、しかも神との関係も人格的（契約的）であり、男と女とに創造されたということから、人と人との隣関係も人格的で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こうして人格的に、共に生きる人間が、神と共に働いて、使命を果たすということである。それが第三番目の、治め、耕し、守ること、即ち、人間が神の代りに、自然を開発、発展させ、それを維持することであるが、それを実行するに当たって、それ以上に大切な、神の命令（御言）への服従のもとで遂行することが、厳しく警告されているのである。それでいて、人間は理性と自由意志を持ったものとして創られている所に、罪や悪の問題と合わせて、非常に難解なものになっているのである。この御言（生命の契約）を破った時には、死を以て臨むと言われている（'17）。創造の全計画の目的であり、全地を神に代って支める地の王（即ち、神の子たち）となる筈の人間が、この生命の契約を破る事によって、神との関係が切れ、樂園を追われ、ここに罪が起り、墮落が始まり、腐敗が広がって、心の心まで腐って、「主は人の悪が地には

びこり、すべてその心に思いをはかることが、いつも悪い事ばかりであるのを見られた」（創6・5）とあるようになったと聖書は語っているのである。

所が、一般的な考え（非聖書的）は、むしろ、神との生命の契約の破棄、神への反逆、性的目覚め、樂園からの追放こそ、人間の発達過程であると逆に見ているのである。先づ、人間は、母なる大地、自然から生まれ、その自然の中で、自分が動物や樹々と同じものだという感情をもって、その自然に合一し、しがみついている。こういう段階に於ては、動物を神にする。

次の段階に来ると、自然の植物や動物を得る技術が発達して、自分たちの手になるものを神とし、金、銀、土くれ、その他を偶像に造って拝む。

次には、人間の尊さを発見し、神に人間の姿を与える。所が、人間には、男と女があるから、父系宗教のどちらかになる。前者は、正義と厳格を要求し、罰し、報いを与え、自分を愛する者を子として選ぶ。後者は、貧しくて、無力でも、犯罪を犯しても、全てを包んで、愛し、分け隔てをせず、救い、助け、許す。そして、母系から専制的な父系に移る。

次の段階は、専制的な各部族の主人より、自らも約束した原則を守るという、自己拘束的な、情深い父としての神として示されるようになり、これが更に父という人格ではなくて、正義、真実、愛等の原理が神とされ、更に進んで、一切の現象の多様性の背後にある、統一性を見るに至り、神は、表現されぬ者、名づけられる者であり、ただ、成りつつある所の成りつつあるものとしてしか示されなくなる。

멋진 印刷는
여기서新聞・カタログ・雑誌
ポスター・事務用印刷
韓国文翻訳・印刷

僑 文 社

大阪市生野区鶴橋南之町2-335
電話 (06) 716-5046 (F544)在日韓国人
合唱団案内

音楽（混声四部合唱）を通じての私達のこの集いは、最初は十人足らずで始めたのですが、今ではもう二十名余のメンバーが毎週はりきって練習に励んでおります。

その間、早や三年余が過ぎましたが、それこそ毎週、雨の日も風の日も負けずに練習を続けて来ました。

これからの団員一同の協力と努力を重ねて、一人でも多く僑胞のみなさまに理解していただける合唱団に育てていくようがんばります。

まじめに私達と共に歌ってゆきたい方、関心のある方は、いつでも自由にお越し下さい。

練習日 毎週火曜日六時半〜八時半
練習場所 大阪市東区博労町五十二七
韓国教育文化センター内
(地下鉄心斎橋下車)

電話二五一八三九六

連絡先 僑文社内

指導責任者 康成安
電話七六一五〇四六



《説教》 甦いの主

田 永 福 牧 師

ヨハネ 21:1~14

キリストの甦りが歴史の中に起った、只一つの大事件であることが、今日まで2000年近くの間、全世界に宣べ伝えられて来た。ここに記された短い記録は、聖書の中の聖言としてでなく、そこに起った事件をそのまま修飾もなく、作文をされず、誇張もなく、ありのまま記録されたものである。所謂、宗教的な神話として記されたものであったとすれば、今日、全世界の人々が信じると言う事は、あり得ないであろうし、我々にしても、外国から来た、宣教師の言に今日まで惑わされて、荒唐無稽の物語りを、生命をかけて信じ込んで来たことになる。然し、ここにこそ、キリスト教の生命のあることを、知って、信仰に生涯をかけて来たのであった。死から甦って、共に語り、共に食し給うた、キリストに出会い、弟子達は余りにも、有り得ない事実が驚き、気の狂うほどに、この事実を証して歩いた、至るところ、当時の宗教家、政治家、哲学者、学者、権勢者から迫害を受けたのは、死人が生きかえったことを、言いふらしていることの為であった。

パウロは、キリストの生前、神殿での説教も聞き、たかがナザレの大工の息子、長いユダヤの伝統と貴いモーセの律法を攪乱する者と、怒りをこめて横目で、ながめていたであろう、それが、ダマスコの途上で、甦ったキリストから、ソウロソウロと呼ばれ、愕然とした。そして、彼の生涯は根本からくつがえされて、キリストこそ

神であると言う驚きと、キリストによる深い啓示によって示された、神の救極の聖旨と、キリストの十字架の死と、復活により、神から人類に恩寵として与えられた、福音の真髓が彼をして狂えるが如く、異邦の世界にまで死をかけて、宣教に向わしめたのであった。

福音の理解云々が、今日の問題と論ぜられ、神学論にうつつを抜かせている時、福音は人間の理解にかかわるものでなく、キリストが十字架にかかり死に給うたこと、死から甦り、今も尚、歴史の主として生きて居られる事実のみが福音であると、今日のイースターに、キリストは語って居られる。

キリストは真実、甦ったのか、賛否、両論、2000年の間、論議されて来た。それはすべて、いつも墓場での論議であって、そこには、キリストは居られないで、墓からすでに甦って、今も、歴史の中に働いて居られるのである。コックスの言を借りるならば、「最近15年から20年の間、教会よりはるかに先んじて、この世に於て、もろもろの事を遂行されている。教会は、そこに追いつくため、駆け出さねばならない。すでに、そこに居られる御方と出会うのは、そこである。」と言っている。キリストは教会の首として、我々の礼拝を受けて居られるだろう。然し、それよりも、キリストは、歴史の主として、歴史の只中で、その聖旨の、その摂理を遂行して居られる。パウロは、「キリスト、我がかた

わらに立ちて、我を助け給う（テモテ後の手紙4:17）とある。世の終りまで、いつも、汝らと共に居るであろう」と、言われた。甦りのキリストと共に生きることが、我々の信仰の生涯である。キリスト教と言う宗教を信じるのではなく、聖書の教えを信じるのではなく、教理、神学を信じるのではない。聖書の中に証しされ、生きて居らるキリスト神学によって、世界の教会の信仰の告白を聞かされる生けるキリストと共に生き、共に働くのが、我々の信仰で

ある。1943年4月9日、フロッセンブルグの獄に於て、39年の生涯を閉じた、ボネファーが、死の直前、書き送った書翰の中に、「溢れるばかりに満された苦杯を、あなたが与え給うなら、恐れず、感謝して、いつくしみのみ手より受けよう。……心安らかに来るべきものを待つ、神は夜も朝も、新しい日々も、必らず、我らと共にいまし給う」と、書いている。ここにこそ、生死を越えた、キリストとの深い生活と愛の結びつきがあるのである。

甦りの主は、在日韓国人基督者に、生きる望みと、只一つの救いを与え給う御方である、甦りの主なくして、我々のすべては、無に帰して仕舞うことを知っている。

(伝道総幹事)

事務所は、東京都渋谷区桜丘13-14
渋谷会館 16号
電話 (03) 461-3774

(三面よりつづく)

ここに至って、神を人間や、父という考えから人間を解放する段階であると見るのが、エーリッヒ・フロム等の考えなのである。

この様な考えから見れば、人間は神に何物をも希待することも、求めることもせず、神についても一言も語らず、名すら言わずして、ただ、神については何事も知りえないという自己の謙遜の中で生きるという訳である。人間が、思想史に於て辿りついたのが、神は不定の不定とか、絶対無であ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究極的な唯一の道は、思考の中にはなく、行為の中に、愛を媒介としての一体性の経験の中にあると悟るに到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更に言葉を変えて云うならば、世を説明するのではなく、変革するという行為こそが大切なのだ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るのである。(人間改造をも含めて) 即ち、人間の歴史とは、人間が、神になる過程だという訳である。

子供が、始めは母親の愛の下で生き、それから離れて、父親の方向へと向かい、完全に成熟すると、自分を守って下れる、母や父から、自らを解き放って、自分自らが、自らが、自分の父や母となる如く、神についても、これと同じ発展を見る訳である。母なる神より、父なる神へ、そして、これら一切の影響から離れて、自らの中に、そこで示されていた、愛や正義の原則をとり入れて、神と一なる成熟段階に達し、表面上、無神論的な者として生きるということである。

(つづく)

「朴君を囲む会」結成へ

朴鐘碩君(19才)は、昨年8月、日立製作所ソフトウェア戸塚工場の入社試験を受け、9月に正式採用通知を受けとった為に、前の会社を辞めて横浜に出て来たところ、日立側は、朝鮮人であるという理由だけで解雇を言い渡した、しかも解雇の理由について、全然、誠意をもって答えず、責任を回避し続けた。そこで朴君は、朝鮮人に対する差別と告発すべく、1月8日在日朝鮮人として初めて、正式に訴訟を起した。

このことは、日本社会に於ての民族差別と日本国政府によって、次から次へと打ち出されている、差別的な法規に対して、真正面から、抗議ののろしを上げた義挙である。小さい、弱い、在日韓国人の一青年が、泰山に向って呼び

かけているのである。我々は黙視出来ない。この訴訟を通して、民族全体の生きる道を開拓しなければならない。勝ち負けよりも、改革を起さなければならない。われわれはこの一挙をもって、真実な革新への貴い導火線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広く、日本人、在日中国人、韓国人に「朴君を囲む会」への参加を呼びかけねばならない。

会の名称を「朴君を囲む会」とする

会員はすべて、個人の資格で参加する。

会員は、会費を収めて、裁判の為の諸活動を担っていく。

裁判の経過報告は、刊行物で知らされる。

集会は、月一度、原則として持たれる。

教会の集会などにご利用を

教会の皆様には一泊2食付、サービス料などすべて込みで、¥1500.-です。
「ヘルストロン」保健装置を無料でご使用できます。
また、このルームにはキリスト教書籍を設置。

在日大韓基督教会 指定旅館

上 椿

代表者 金 京 秋

和歌山県西牟婁郡白浜町椿
電話富田 (073991) 445~6

大阪案内所 大阪市北区曽根崎町2-21
電話大阪 (06) 341-2162

